



"말씀과 성찬의 식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청소년 주일)

2024년 5월 26일 / 제639호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Office Hour: 화·목·금·주일 9AM - 1PM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871- 9746

미사	교중 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평일 미사	화·목·금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주일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유아세례	사무실로 문의	

주일학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신심단체	레지오 마리아: 주일 / 평일미사 전후
	울드레야: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재속 프란치스코: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해설 김지용 제1독서 이주일 제2독서 유연호 / 입당 81 봉헌 210, 211 성체 161, 155 파견 80  
Narrator Hawlan Ng 1<sup>st</sup> Reader George Hegarty 2<sup>nd</sup> Reader Mira Ng

입당송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찬미받으소서.

제1독서 | 신명 4,32-34.39-40

화답송 | 시편 33(32),4-5.6과 9.18-19.20과 22

(© 12ㄴ 참조)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

○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여시고, 당신 입김으로 천상 만군 만드셨네. 그분이 말씀하시자 이루어지고, 그분이 명령하시자 생겨났네.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

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

○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

제2독서 | 로마 8,14-17

복음환호송 | 묵시 1,8 참조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받으소서. ◎

복음 | 요한 20,19-23

영성체송 | 사도 2,4.11 참조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주일학교 및 영어미사 안내]

05월 26일	주일학교 NO	Fr. Gerald
06월 02일	주일학교 NO	Fr. Gerald
06월 09일	주일학교 NO	Fr. Jim
06월 16일	주일학교 NO	Fr. Bong



“기도 부탁드립니다.”

Yong Ah Lee, 윤정의 알폰소,  
박길순 수산나, 이순옥 테레사,  
김난수 로사, 이형숙 한나,

주종남 바오로, 이경희 에우세비아, 이동식 토마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느님을 상속한 사람

수도원의 종소리가 울리고 형제들이 정해진 장소에 모입니다. 몸이 따르는 곳에는 마음까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치된 지향으로 부르심을 이루는 일은 언제나 도전입니다. 하루는 밭에 거름을 주어 두둑하게 고랑을 세우는데 그 모습부터가 제각각입니다. 누구는 긴 팔에 옷옷까지 걸치고 중무장을 한 반면, 가벼운 셔츠 한 장에 작업복 차림, 양말까지 벗어 던진 형제도 있으니 유별해도 이렇게 다를 수는 없습니다. 가지각색의 마음에서 출발한 밭갈이 작업인 만큼 결실에서 드러난 모습도 달랐습니다. 성심껏 거름을 섞은 곳은 새싹부터 열매까지 튼실했지만, 영양분 없는 흙 두둑의 작물들은 수확이 영 민망한 수준입니다. 마음이 빠진 자리에 소홀함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빈약한 밭고랑에는 결실도 하나 없이 한 계절의 수고로움만 소진하고 말았습니다.

남은 제자 열한 명이 “갈릴래야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마태 28,16)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의 행동을 하나로 묶어 움직이고 있는 힘은 스승님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스승님의 분부를 받드는 제자들이었으나 마음에서 의구심을 완벽하게 떨쳐내지는 못했던 모양입니다. 동일한 식탁에 앉아 같은 빵과 잔을 나누었던 유다 이스카리옷을 잃은 쓰라린 체험을 했음에도 완전한 믿음에 이르는 길은 소원합니다. 갈라진 마음은 부르심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을 알리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뵈옵는 감격스런 장면에도 그 정체는 이렇게 부각됩니다. “더러는 의심하였다.”(마태 28,17) 미세한 틈바구니에도 동지를 트는 의심은 하느님 신비에 대한 수용과 결실을 가로막는 완고함으로 귀결됩니

다.

무언가를 확실히 알 수 없기에 믿을 수 없는 마음을 ‘의심’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신뢰하려는 결심을 ‘확신’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확신에 찬 제자들에게 비로소 맡겨진 사명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 하느님 신비를 세상 끝까지 선포하여 하나의 신앙고백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파견에 이어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세 분의 위격이 일체를 이룬 한 분이신 하느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로마 8,16)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불신으로 점철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로마 8,17)가 되는 길은 그분과 함께 당하는 고난 속에서 영광을 찾는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은 ‘오늘 다른 하느님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 새기며 그분의 규정과 계명들을 지키는’(신명 4,39-40 참조) 결심으로 힘차게 오른손을 들어 이마와 가슴과 어깨를 차례로 짚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믿음의 백성들 앞에서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선포되었습니다.

류지인 야고보 신부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p><b>김수정 REALTOR®</b> Soo Jung (Julia) Kim KELLERWILLIAMS   DRE 02049482 <b>925.416.9249 kw</b> julia.kim@kw.com</p>	<p><b>대 건 한 의 원</b> 한의학 박사 이 준 침, 안약, 제충조절, 통증조절, 제질관별, 건강상담 6990 Village Pkwy #212 Dublin, CA 925-765-9755</p>	<p><b>STEVE G KIM DDS</b> Family &amp; Cosmetic Dentistry Dr. 김진만 치과병원 111 Deerwood Rd. Suite350 San Ramon, CA 94583 925-718-8970 / sgkdental@gmail.com www.sgkdental.com</p>	<p><b>Tri-Valley Orthodontics</b> Jesse H. Ko DMD / Anne Yoon DDS 111 Deerwood Rd. Ste. 185 San Ramon, CA 94583 ph. 925-272-7868 www.tri-ortho.com</p>
<p><b>N² ART &amp; DESIGN</b> Private and Group Art Lesson 650-766-0972 n2artndesign.com n2artndesign@gmail.com</p>	<p><b>부동산 거래 필수 에이전트!</b> <b>탐탁 부동산</b> TOM TAHK / 토마스 408-499-6543 / realtor.tahk@gmail.com *탐탁하다: [형용사] 모양이나 태도, 또는 어떤 일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하다.</p>	<p><b>미술교실</b> 전통민화 · 수채화 · 드로잉 · 아크릴화 초보자들도 쉽게 시작할수 있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지도해 드립니다 Cell (925)818-0770 fremontart@yahoo.com</p>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지난 시간에 대해 후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 순간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상황이 지금보다 좀 더 좋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우리는 후회 속에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곤 합니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지난 시간이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때의 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더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후회 속에 지난 과거를 괴로워하는 모습은 때때로 자신의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시간의 그늘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지난 시간에 대해 후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걸로 봤을 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사는 동안 모든 것을 갖춰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그 뒷면에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후회와 아쉬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인간적 나약함 앞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모습이 있다면 ‘후회’가 아니라 ‘뉘우침’입니다.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같은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드는 모습입니다. 후회를 매번 후회로만 남겨둔다면, 항상 그 후회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후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뉘우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뉘우칠까요?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지난 잘못만을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뉘우침의 기준은 바로 하느님께 있습니다. 미사 때 사제가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 잘못에 대해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 잘못들 속에서 나 자신이 어떻게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또 어떻게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돌아보라는 초대입니다. 나 자신의 마음 아픔이 아니라, 하느님의 마음 아픔을 헤아리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 그 아픔을 다시는 그분께 드리지 않겠다는 ‘뉘우침’을 행하라는 초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뉘우칩니다. 살아가며 생각을 통해 하느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더 마음에 담아두었음을... 말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누군가를 슬프게 하고 아픔을 주었음을... 그리고 행동을 통해 하느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더 좋아하며 그분을 멀리해 왔음을...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영향을 주면서 지금까지 내 삶을 형성해 왔기에 생각만의 탓도, 말만의 탓도, 그리고 행동만의 탓도 아님을 뉘우치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p>CPA 조미정 (카타리나) <b>조미정 공인회계사무소</b> 6602 Owens Dr. #200 Pleasanton, CA 94588 Tel) 925-803-0200 jenny@jchocpa.com</p>	<p>새 차 13개 자동차 매장에서 도와드립니다 <b>HANLEES AUTO GROUP</b>  HILLTOP FREMONT FAIRFIELD NAPA DAVIS <b>SUE CHO</b> CELL: 530-220-2848</p>	<p><b>PARK CHIROPRACTIC</b> Dr. Joon Park Office (925) 355-1450 Cell (925) 997-1257 7027 Dublin Blvd. Suite #101 Dublin, CA 94568</p>
<p><b>HARMONY ACUPUNCTURE</b> 석은경 아가다(Agatha Suk L.Ac) Tel 510-889-8062 917 C St. Hayward, CA 94541 www.harmony-acu.com harmonyacupuncture1@gmail.com</p>	<p> Dublin Pediatric Dentistry &amp; Orthodontics 소아치과   교정 전문의 <b>Elizabeth Jihyun Kim, DDS, MS</b> 11920 Dublin Green Drive, Dublin, CA 94568 (925) 833-1900   smiles@dublinpdo.com www.dublinpdo.com</p>	<p><b>COMPASS</b>  <b>AIDEN KIM</b> 에이튼 킴 (니콜라오) REALTOR® 부동산 925.389.2463 Aiden.kim@compass.com DRE # 01983236  TIM MCGUIRE TEAM</p>
<p><b>West Dublin PETSMART</b> <b>한국어상담가능 수의사 임경택</b>  6960 Amador Plaza Rd, Dublin 925-644-3114 DublinCA@petsmartvetservice.com</p>	<p><b>James Golf Class</b> 어려운 골프 쉽게 쉽게! Instructor: 나정태(제임스) 925-434-2659 jrha.golf@gmail.com USGTF License #: 11512 </p>	<p> <b>STAR태권도</b> STAR TAEKWONDO 하성곤 요제프 (925)404-9765 1490 N. Vasco RD, Livermore StarTaeKwonDo.com MasterHa@StarTaeKwonDo.com</p>



■ 제1차 세계 어린이의 날

- 주제: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묵시 21,5)
-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5월 25-26일을 제1차 세계 어린이의 날로 정하시고 어린이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교황님의 지향에 맞춰 어린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세계 어린이의 날 기도

- "오소서, 성령님! 전 세계 아이들의 얼굴에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소서. 오소서, 예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 저희를 아버지께 인도하는 길이신 예수님, 오시어 항상 저희와 함께하소서. 아멘."

■ 학생 졸업 축복식 안내

- 일시: 5월 26일(주일), 교중미사 중

■ 졸업을 축하합니다!

- Aden Souza · Aden
- Alicia Kim · Alice
- 김채은 Joanne Kim · Isabella
- 남윤서 Michelle Nam · Michelle
- 배윤서 Adrienne Bae · Adrienne
- 이대호 Theo Lee · Theophilus
- 이태윤 Teddy Lee · Nicolas
- 정서유 Seoyoo Jung · Sophia
- 정선우 Sunwoo Jung · John
- 최지호 Rachel Choi · Rebecca
- 홍지선 Elizabeth Hong · Josephina
- 홍준영 Alexander Hong · Alexander

■ 2024년 사순시기 말씀살기 노트 반환

- 지난 사순시기에 실천하고 제출하신 말씀살기 노트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공용 가톨릭성가책 사용 안내

- 익명의 교우분께서 본당 전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톨릭 성가"(수정보완판) 책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 6월부터 교중미사 전 성당 입구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미사 중에 자유롭게 활용하시고 미사 후에는 반환해 주시면 됩니다.
- 봉헌해 주신 익명의 교우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트라이밸리 재속 프란치스코회 5월 월례 모임

- 일시: 5월 26일(주일), 오후 1시
- 장소: Room A
- 문의: 유인숙 요한나(925-708-8510)

■ 2024 Christus North Retreat

- 일시: 2024년 6월 28일(금) - 30일(주일)
- 장소: Vallombrosa Retreat Center  
250 Oak Grove Ave, Menlo Park, CA 94025
- 전예운 마리쥬세핀 수녀님과 전지윤 신부님이 교회에서 멀어져 가는 청년들을 위해 준비한 피정입니다. 우리 본당의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 신청: <https://www.christusretreat.org/>

■ 요아킴 · 안나회 일일 여행

- 일시: 5월 29일(수), 오전 8시 55분 - 오후 6시
- 장소: St. Mary's Cathedral, Pier39, Coit Tower, Palace of Fine Arts
- 참가비: 1인당 \$50(점심, 간식과 물, 팁 포함)
- 오전 8시 45분에 성당 앞 주차장 집결 후 출발
- 문의: 조난순 안젤라(925-890-0818), 김혜숙 사라(415-794-4019)

■ 축구 기어 드라이브 행사

- 저소득층과 난민 어린이들을 위해 이스트 베이 난민 캠프(CRECE)에서 진행중인 무료 축구 프로그램(Better Together Soccer)에 사용될 축구용품을 도네이션 받습니다.
- 품목: 새것이나 새것같이 깨끗하게 이용한 각종 축구용품
- 기간: 6월 2일(주일)까지
- 장소: 성당 로비(비치된 바구니 활용)

■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수표 작성 시 Payable to Tri-Valley Korean Catholic Church)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English Mass				
\$1488	-	-	-	-	\$1488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간식봉헌 김민규 바오로 · 이자영 엘리사벳

5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수도자와 신학생 양성

For the formation of religious and seminarians

남녀 수도자들과 신학생들이 인간적, 사목적, 영성적, 공동체적 양성을 통하여 각자의 고유한 성소를 키워 복음의 믿음직한 증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We pray that religious women and men, and seminarians, grow in their own vocations through their human, pastoral, spiritual and community formation, leading them to be credible witnesses to the Gospel.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고해성사 후 나오실 때  
고해소 문을 살짝 열어  
두시기 바랍니다.